

# 耕地整理를 위한 座談會

司會者：林 迎 春(學會長)



▲ 長 바쁘신데 이처럼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農業土木事業은 農耕地에 用水 供給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營農의 近代化를 위해 耕地整理事業을 실시하여 왔으나 지금 일대 轉換期를 맞이한 오늘날 이자리를 빌어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學會誌에 게재하여 會員全員이 耕地耕理 現況과 앞으로 하여야 할 방향을 提示 또는 建議하는 契機가 되어야 겠습니다. 기탄없는 意見 交換과 좋은 말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問 1>

司 會 農村 生活의 改善, 營農改善등 農村近代化를 위하여 耕地整理事業을 施行하고 있는데 그 必要性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鎮鎬 우리나라의 都市와 農村간의 所得 格差를 없애고 農家所得 增大와 생활 향상을 가능케 하는 農村近代化가 시급하며 이를 위한 農地基盤 구축으로는 耕地整理事業은 필수적인 事業이라 하겠습니다.

金始源 우리나라 農村의 近代化는 農業基盤造成에 있다고 봅니다. 農村近代化 촉진법에도 밝혀 있듯이 農村近代化는 農業基盤造成은 그 근본은 土

<가나다順>

對話者：金 始 源(建國大 農大學長)

〃 金 哲 基(忠北大 農大教授)

〃 盧 泰 來(農組聯合會 技術理事)

〃 李 基 春(全北大 農大教授)

〃 鄭 鎮 鎬(農振公 技術理事)

〃 崔 玄 國(農水產部 耕地改善課長)

〃 咸 俊 鎬(農振公 技術理事)

地基盤造成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營農 近代化를 위하여 이제까지 耕地狀態를 바꾸어야 하고 分散된 農地는 集團化하고 그 다음에 부정형의 농지를 定型化 하고 거기에 맞는 近代化의 방향(농업기계화)으로 營農方式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農地 여건이 갖추어져야 하겠다고 生覺하며 이런 뜻에서 볼 때 耕地整理의 必要性은 이러한 점에서 강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盧泰來 必要性에 있어서 金始源學長의 좋은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 저희 生覺으로는 지금 現在 國家的인 立場에서 볼 때 安全的 食糧을 供給하여 야만 되겠다고 할 때 지금 現在 가장 農村에서 現代化를 부르짖고 있는 것이 農村 勞動人口가 減少一路에 있고 더구나 年齡이 老下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하루 속히 耕地를 整備해서 機械化를 갖추어 營農의 近代化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 機械化하므로써 남은 勞動을 第2次産業化에 기여할 수 있고 유휴 勞動을 重工業 部分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길이 된다고 볼 때 食糧의 安全的 공급을 기대하면서 近代化의 必要性의 切迫할 때 라고 生覺합니다.

金哲基 여러분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로서 할말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耕地整理 事業을 하므로써 現代化基盤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收支가 맞지 않은 農事가 되어서 안된다고 生覺합니다. 耕地整理 事業의 目的으로는 土地生産性的의 向上 勞動生産性的의 向上 두가지로 集約된다고 생

각이 됩니다. 土地生産性 向上 事業을 위하여 해야 할 事業으로서 灌溉排水 組織등이며 勞動生産性 問題는 機械化 基盤으로서의 生覺해야 할 問題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實情에 비추워 볼때 土地生産性도 重要하지만 勞動生産性 向上을 위한 소위 機械化基盤을 造成하는 必要性이 있지 않나 生覺해 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耕地整理 事業은 機械化 基盤造成이 더 強調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李基春** 耕地整理事業에 대한 一般의인 必要性은 나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저희 生覺으로는 現時點에서 볼때 耕地整理 事業이 이미 實施된 곳이 있는데 施設의 老朽 및 農機械 導入에 따른 再整備가 必要하지 않나 생각되어 집니다.

그외 規模가 적은 山間地의 버려진 農土들이 相當히 있습니다. 그러한 極地 農村의 近代化와 效率의으로 活用될 수 있게 耕地整理 事業을 통한 農地基盤 造成을 施行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생각됩니다.

<문 2>

**司 會** 첫째 問題에서 必要性에 따라서 本事業을 施行했다고 본다면 둘째 問題의 어떤 效果를 갖을 수 있나? 이 效果에 있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始源** 耕地整理 效果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라 봅니다. 耕地整理 事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狹小한 農地가 機械化 導入을 위해 알맞은 區劃으로 만들어지고 그 各筆地마다 用排水가 自由로와 지고 또는 農路가 改設되고 부터 營農의 便利를 圖謀할 수 있고 이렇게 되므로서 機械化가 可能하게 되며 勞動力을 節減할 수 있고 또 耕作뿐만 아니라 수도의 栽培管理가 便利한 모든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때 生産性 增大와 勞動力의 節減이라 할 수 있습니다. 過去에는 호미와 삼단을 가지고 農事짓던 方法이 이제 트랙터, 콤바인등을 利用하여 營農을 하므로서 부터 이제까지 고답적인 營農方式으로 부터 現代化된 方向으로 農業을 이끌어 나가 土地基盤 造成이 된다는 것이 바로 耕地整理 事業의 效果라고 생각합니다.

**崔玄國** 耕地整理事業의 效果는 勿論 土地生産性의 제고, 勞動生産性의 제고라고 集約이 되겠지만 저는 다른면에서 效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耕地

整理를 하면 農業機械化의 基盤을 구축하고 農業機械化가 導入이 되면 農繁期 勞動力 부족으로 많은 人員의 公務員, 國營企業體職員, 學生, 軍警이 農村 일손 돕기를 하고 있는데 이를 輕減시킬 수 있을뿐만 아니라 農村 勞動力만으로도 營農이 가능케 될 수 있는 效果가 있다고 봅니다.

환언하면 古代農業에서 벗어나서 편안한 農業이 필수적인 요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所得이 增大되고 또한 여러가지 社會 여건이 發展함에 따라 보다 낫고 보다 편안한 方式으로 所得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咸俊鎭** 이미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하여주셨습니다. 耕地整理 事業의 效果는 여러가지 면에서 언급할 수 있으나 勿論 生産力에 效果면과 營農에 現代化라 할까 農民生活에 環境整備 두가지면에서 耕地整理事業의 效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生産性의 效果는 역시 여러가지 圖式로 分析하며 계수로 나오겠지만 영농의 現代化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것을 계수적으로 나타낼 수 없고 農民이 營農 方法으로의 效果면이 나타나지 않음까 또 耕地整理事業을 해서 과거 고결적인 영농방식에서 벗어나고 먼 장래를 내다본 영농 效果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農村地域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盧泰來** 앞에서 좋은 말씀을 하여주셨는데 耕地整理 事業의 效果에 대한 계수적인 표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없지만 日本의 경우를 보면 平均해서 作物 生産增加 效果는 19.2%, 營農勞力 節減 效果는 78.2%, 유지관리 절감 效果는 2.6%, 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볼때 두드러지게 效果가 나타나는 것은 營農 勞力 절감면에이라 하겠습니다. 그외 또 하나는 우리가 直接 표시 못하는 여러가지 形態의 效果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農村的 環境을 改善해서 그에 대해서 經濟的 社會的 파급 效果가 큰 事業이라 생각할 때 우리 農村에 대해서 크고 좋은 事業이라고 생각합니다.

**金哲基** 저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耕地整理 事業이 一般 土木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都市計劃과 비유됩니다. 그러므로 耕地整理 事業을 이루워 놓으면 確實히 農村에 農地環境이 완전일진 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高速道路를 낸다고 할 때 상인의 事業이 달라지듯이 耕地整理를 해놓으면 農民이 새로운 작도에서 무엇인가 생각하고 다시 말하면 지금 협업농이라고 부르짖

음니다만 협업농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유도하기 쉬운 그런 基盤造成이 아니겠느냐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耕地整理 事業의 效果라한다면 앞으로 營農의 近代化 方向으로 하루빨리 유도할 수 있는 契機가 되지 않나 生覺됩니다.

**司會** 들께問題에 대해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하여주셨고 특히 盧泰來 理事께서는 日本의 계수적인 問題까지 提示하셨고 金哲基博士 말씀대로 都市計劃을 農村에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農村革命이라고 할 수 있으며 農村 環境이 바뀌는 事業이라 할 수 있습니다.

### <問 3>

**司會** 耕地整理 事業의 特殊性을 他事業과 比較할 때 그 基準을 어디에 두느냐의 問題點이 있겠으나 그 특수성은 環境變化나 施行工期 문제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特殊性에 對하여 좋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鎮鎭** 다른 事業과 다른 것이 우선 農民의 個人 財產과 直結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事業을 하면서 從前의 땅을 고루고 다른 區劃을 整理하고 좋은 땅을 받느냐 나쁜 땅을 받느냐에 따라 農民 個人의 利解 關係가 隨伴되는 것이 特性이 겠고 또 多少 土地가 줄기 때문에 그에 對한 利解關係가 따릅니다. 이런點을 앞으로 科學的으로 分析해서 農民의 利解 關係를 圓만히 解決하여야 겠고 또 期限附 工事에 따른 事業施行이 他 事業과 다른 點이 이라 하겠습니다.

**金始源** 土地改良 事業중에서 特殊性和 建設 事業의 인 立場에서 특수성이 다른 事業과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耕地整理 事業의 對象이 되는 것은 農地이고 이 農地는 어디까지나 農民의 個人의 財產이기 때문에 이 財產을 가지고 耕作者에게 가장 損害가 없이 農民 福祉를 위하여 選地하는 問題도 생각해야 되고 分配 및 整備問題까지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점을 勸業하여 불배 建設事業中에서도 耕地整理 事業은 技術的으로나 혹은 社會的으로나 다른 事業보다 어려운 事業의 側面에 놓여 있고 이러한 事業을 할 때는 農民의 利解와 양해하에 施行되는 것이 特殊性이라 생각됩니다.

**崔玄國** 耕地整理 事業은 土木事業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다른 事業과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一般 土木事業에 있어서는 農民이 가지고 있는 農地가 公共 施設物로 부지와 할 때는 鑑定價額에 의

하여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耕地整理 事業에서는 用地買收는 없으며 土地財產上의 損害를 分明히 가져오는 事業이고 또한 事業費 부담면에 있어서도 他事業뿐만 아니라 우리 農業基盤造成 事業全般에 있어 일시 負擔이라는 것이 없는데 農民들은 耕地整理 事業을 하는 總工事費의 20%를 負擔을 해야하는 特殊性이 있습니다.

**成俊鎭** 耕地整理 事業은 한번하면 그 施設을 당장 고칠수 없고 한번 잘못하면 그 影響이 農民에게 미치는 期間은 100年, 200年이 가는 事業임으로 이 사업은 當初 長期的인 眼目에서 耕地整理를 計劃하고 實行을 하여야 되지 않나 생각되며 다른 一般土木事業하고 根本的으로 다른 것이 그 目的 效果 財產權 問題 土地利用 問題, 土壤改良 問題, 時期問題, 이러한 것이 複合的으로 作用을 해서 이루어지는 事業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하지 못하면 子孫萬代에 농촌 발전에 지장이 오는 事業이라는 것이 他事業과 根本的으로 다른 特殊性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金哲基** 지금까지 좋은 말씀을 하여 주셨고 들었습니다만 제가 한가지 添附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灌溉改善 事業이다. 혹은 排水改善 事業은 外廓의 인 施設, 기초 시설에 불과하며 耕地整理 事業을 통해서 末端組織을 完結시키므로써 관배수의 效果 또는 앞으로의 機械化 基盤造成에 기여할수 있는 效果를 100% 나타내게 하는 事業이 아니냐고 생각해 보았으며 그러한 점에서 耕地整理 事業은 지금까지 해온 幹線用 排水路의 마무리 짓는 事業으로서의 特殊性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李基春** 耕地整理 特性은 一般的인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구지 添言한다면 技術的인 것만으로 實施할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하자면 社會的, 經濟的 條件, 農民의 意思가 합치되어야만 비로서 分爭없이 이루어지는 事業이라는 特殊性을 이야기 할 수 있고 어쨌든 이 事業을 하면 農土의 減少가 불가피 하여지고 減少된 農土의 補償問題를 解決되어야 하는 것이 特殊性입니다만, 또한 選地의 어려움이 있는 事業이고 金哲基博士 말씀에 重複되나 農業用水 開發事業에 最終的인 結果를 매듭짓는 事業이 바로 耕地整理 事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問 4>

**司會** 耕地整理 事業이 農村近代化의 基本이 되는

것이 自明한 이치이고 어디까지나 農民을 위한 것이고 農村의 가장 重要한 事業으로써 새마을 사업과 關聯될때 광의적인 새마을 사업의 일환 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重要性을 비추어 새마을 사업과의 關聯性에 對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鄭鎮鎬** 會長 말씀과 같이 새마을 事業의 一環으로 施行하여야만이 이 사업의 目的이 達成될수 있다고 結論짓고 싶습니다. 이 事業의 추진에 필요한 財源중 순수하게 農民이 20%를 負擔하여야 하는 特殊性, 農民 各者의 利解 關係가 큰 換地 業務 處理等 어려운 문제점이 많으므로 이를 解決키 위하여는 農民 各者가 새마을 運動의 自助, 協同의 基本精神에 立脚하여 서로가 協助하여 이 사업을 끌고 나가야 만의 所期目的을 達成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耕地整理 사업은 어느 事業보다 새마을 사업과 關聯性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金始源** 조금전에서도 말씀 드렸읍니다만 耕地整理 事業의 農業近代化는 바로 環境 基盤造成, 土地 基盤造成이라고 들었으며 環境基盤造成은 어디까지나 근면, 자조, 하는 精神이바로 生活革命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協同이라고 본다면 技術的 立場에서 協同과 精神의인 立場에서 협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할때 바로 耕地整理事業은 새마을 精神과 一致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耕地整理 事業과 새마을 사업과 關聯性을 서로 떨어질수 없는 基本精神의 附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咸俊鎬** 새마을 事業이란 定義와 事業의 範疇가 너무 廣範圍하고 또 어느면에서 볼때 推想的이기 때문에 과연 耕地整理事業을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끌고 나갈수 있을 것인가 생각할때 여러가지 問題가 많을 것입니다.

여기에 精神의인 문제 및 事業費의 20%가 농민이 負擔하기 때문에 協調와 農民의 努力으로서 이 사업을 施行해 나가기 때문에 새마을 사업과 一致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實質的으로 農民의 20% 負擔하여 事業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疑問스럽읍니다.

새마을 사업은 農民自體가 할수 있는 소규모 사업에 政府가 일부 뒷받침 해주는 形態가 現在까지의 새마을 사업의 範疇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耕地整理事業은 어디까지나 耕地整理事業으로서 새마을 精神을 導入하여 相互 協調하는 것이 좋

겠지만 耕地整理 事業과 새마을 사업과 혼성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됩니다.

**盧泰來** 耕地整理 事業과 새마을 사업은 모두 잘 살기 위해서 한다는 精神面에서 볼때 서로 같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耕地整理事業은 農土에 한하여 이루어진다고 생각되며 새마을 事業이란 農村은 물론 都市에서도 할수 있는 道路를 建設한다. 堤防을 쌓는다. 여러가지 일도 있습니다만 특히 耕地整理야 말로 農民 個人인 직접적인 利解 關係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 새마을 사업의 精神에 立脚하여 相互間的 利解와 協調가 眞實히 要求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金哲基** 새마을 事業이란것은 어떠한 면에서 環境 整備 事業이라고 볼수 있는데 現在 聚落構造改善 事業으로 돌리고 있는 耕地整理事業은 生活 環境整備라는 면에서 볼때 오히려 취락 구조사업 보다도 먼저 耕地整理 事業을 하여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政府에서 시행하는 聚落構造改善 事業이상으로 耕地整理 事業을 더 力點을 두어 推進하여야 할 사업이 아닌가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問 5>

**司 會** 地方民의 耕地整理 事業 施行을 願할때 어떠한 節次로 事業 推進을 하여야 하는지 實務를 擔當하고 계신 盧泰來 理事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盧泰來** 施行 節次에 있어서는 농근법 제5조 農地 改良事業에 參與할 資格이 明示되어 있습니다. 첫째 農組 區域內 耕地整理 事業에 있어서는 區域內에 있는 組舍員의 2/3 同意로서 希望地가 申請되며 組舍에서는 그에 대해 檢討 選定했다가 事業實行 候補地 신청 기간이 있을때 郡을 경유해서 道에 넘니다. 그러면 道에서는 農水產部 當該年度에 內申面積에 맞추어 順位를 決定해서 農水產部에 申請을 하면 농수산부에서는 檢討후 地區를 確定하여 道에 通報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농조 區域 다시 말해서 농조가 아닌 境遇도 마찬가지로 그 區域內에 사는 住民의 2/3의 同意를 얻어 申請을 郡에 내면, 郡에서 그 地區에 對하여 事業檢討와 選定을 했다가 事業施行 候補地 신청 기간에 道에 내면 道에서 農組것과 市郡에서 나오는 순위를 決定 農水產部에 내면, 농수산부에서는 내신면적을 맞추어 事業地區를 決定하여 道에 通報하면 그때 事業이 이루어 집니다.

<問 6>

司會 지금까지 施行한 耕地整理 事業은 傾斜 1/100以下, 단지 10헥타 以上 地域을 對象으로 하여 事業을 施行하여 왔읍니다. 제 1,에서제 4차 經濟開發 5個年 開發計劃期間동안에 588,000 헥타를 개발토록 政府에서 推進하고 있으며 '79 현재 32.3만 헥타의 開發實績을 올리엿읍니다. 이 期間동안에 年平均에 2萬 헥타 밖에 開發치 못하고 年間 計劃에 55% 미만의 實績을 올렸기 때문에 본 事業을 效果的이고 經濟的으로 推進 하자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지 말씀을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李基春 개발적인 말씀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耕地整理事業의 計劃 範圍를 어떤 範圍, 어떤 面積 이상의 地區를 對象으로 할것이 아니고 전 耕地를 對象으로 하여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山間地의 小面積이라도 어떤 形態라도 整備를 하여야 하고 앞으로는 畝에만 할것이 아니고 田作地에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되며 地勢條件에 따라 小型機械化 할수 있는 地區, 大型機械化가 可能한 地區로 나누어 서라도 計劃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또 將來를 내다보는 計劃이라고도 생각이됩니다. 또 事業 實施前에는 事業計劃에 있어서 效果的인 面에서도 檢討도 하고 있으나 그 資料는 事業實施 過程에 의한 구실로 檢討 調査하는 感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實施後에도 계속해서 關心을 갖이고 實施後얼마나 效果가 나타났느냐 처음 檢討했든 效果가 실시후에도 계속 나타났는지 效果測定이라 할까요? 이러한 事業도 竝行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金哲基 제가 알고 있는 常識으로는 耕地整理 事業도 土地利用 計劃의 일환인 事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몇가지로 區分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長期的인 眼目에 있어 앞으로 2,000年代 農業構造라든지 農村構造 및 營農形態가 어떻게 變化가 되며 어떻게 改善해 나갈 것인지 方向設定을 于先하고 高次元의인 計劃에 臨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現在 政府에서는 2,000年代를 향한 小都市開發 基本 計劃을 81년까지 完了하는 계획으로 推進하고 있는데 小都市開發計劃은 특히 農地하고 관련이 깊은 것입니다. 耕地整理 事業을 推進하는데 있어서도 그러한 問題와도 關聯을 지어

서 그것을 알고 耕地整理 事業을 推進하는데 參考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째는 對象地 再調査과 擴大施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시행한 개발대상지 588천헥타라는 것은 경사1/100, 10헥타 이상의 團地 開發을 根據로 두었고 앞으로 農村 近代化를 위한 農地 基盤構築 및 農村 環境 改善을 위해서는 農機械 導入을 根據로한 耕地整理 開發 對象地를 전면적인 再調査와 再策定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여집니다. 그러므로 地形에 따라 機械의 小型, 中型 大型化 체계에 적합한 耕地整理 가능성 재조사가 각각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耕地整理 시행에 있어서도 平野部나 路邊에다 偏重해서 시행할 것이 아니라 農村 勞力 不足이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農業機械의 必要性이 특히 강한 地區부터 施行하여야겠고 耕地整理의 과감한 확대 실시 문제는 現在 年間 2萬헥타도 不되지만 78년 현재 農業機械 普及 상황을 본다면 耕地整理 보다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이런점을 볼때 農業機械化 普及 이상으로 耕地整理 計劃을 과감하게 推進하여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셋째는 用水의 반복 이용 문제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單位 貯水量이 不足한 실정인데 耕地整理를 하고 난후 排水路가 잘되어 地下 排水로 인한 損失水量과 用水供給에 따른 管理 損失량도 많으니 까 이러한 것을 반복 이용할 수 있는 方法이 있다고 하면 計劃樹立에 反映하여 用水 節約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調査 方法 및 施行 方法問題로서 開發 豫定地에 대한 규모별 즉 大規模, 中規模, 小規模 이렇게 3단계 내지는 5단계로 구분 耕地整理 事業에 대한 施行 方法과 또 設計方法을 考案하여 施行하여야 할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基本 調査를 先行한 후 적합한 地區부터 實施設計하여 開發하여야 할것입니다.

基本調査 및 實施設計 過程에서 畝에 대한 耕地整理뿐만 아니라 將次를 바라보는 隣近 田의 耕地整理도 함께 構想해 가지고 排水問題, 用水補完問題, 土壤改良 問題등을 農耕地의 整備補完 事業이라는 眼目에서 檢討되어야 될것으로 생되며 단시일내에 耕地整理 事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施工 方法도 앞으로 모던면에서 改善해 나가야 하며 앞으로 10년내에 全國에 耕地 造成 事業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機

械化事業이 이루어져야 農村 近代化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金始源** 저는 次元을 달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國家 發展과 우리들의 安全 秩序를 위해서 防衛, 經濟開發, 社會開發 세가지 측면에서 國家豫算이 쓰여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라 北傀와 對置되어 있는 特殊性이 감안되어 있기 때문에 經濟開發에 根本이 되는 農業開發은 重要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饑饉 饑饉해도 기름 파동도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큰 食糧饑饉을 解消하기 위해서 적정 農地에 農事 짓는 데는 가장 便利한 農地를 構築하는 것이 바로 食糧增產에 寄與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國民 3,700萬名의 食糧 供給하고 있는 農耕地는 불과 223.8萬헥타로서 現在 營農에 便利한 土地與件이 갖추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農地基盤 改善을 위하여 그동안 心慮를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耕地整理 事業이 長期的인 次元에서 効果적인 方向으로 이끌려가기 위해서는 이 事業은 3,700萬名의 食糧을 解決하는 사업인 만큼이 事業은 어떤 시대와 政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恒久的인 立場에서 土地基盤 事業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方向으로 防衛的인 차원에서 耕地整理 事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效果的으로 成果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鄭鎮鎬** 앞서 좋은 말씀을 하여주셨고 金始源博士께서 防衛的인 次元에서 말씀하셨는데 政策面에서 添加하고 싶습니다. 耕地整理 事業을 시행키 위하여 우리가 現在 施行하고 있는 法 테두리내에서는 畜에 한해서 여러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데 窮極的으로 耕地整理 事業은 農村의 構造改善의 一環으로 農民의 所得 增大에 寄與한다고 봅니다. 現在 우리가 農村近代化를 爲한 聚落을 改善하고 새마을 事業의 工場誘致와 여러가지 事業을 하고 있는데 李基春教授가 말씀하신 대로 2,000年代를 바라본 耕地整理 事業을 앞으로 聚落改善 事業이나, 기타 工業團地 이러한 것을 勘案한 綜合基本計劃 다시 말해서 農地뿐만이 아닌 農村環境改善등을 勘案한 基本計劃을 세우는 시기가 擡頭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面에서 計劃을 세우고 段階的으로 先 順位에 따라 基盤을 改善토록 政策的인 面에서 다

투어야 된다고 添加합니다.

**司會** 이問題에 있어서 여러 先生님께서 重要性을 異口同聲으로 말씀하여 주셨고 政策的으로나 技術的으로 從前보다 比重을 더두어 가지고 強力한 政策下에서 發展된 技術 보다 效率的인 耕地整理를 할 수 있는 方向의 좋은 이야기를 하여 주시었습니다.

#### <問 7>

**司會** 앞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年間 5萬헥타 開發計劃下에 事業을 推進를 한다 하였으나 2萬헥타 밖에 施行치 못했고 今年에 1萬 5千헥타의 實績을 올린 것은 重要性과 必要性에 비추어 볼 때 잘 推進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耕地整理 事業의 實績과 그의 批判에 對하여 政府측에 특히 要望하고 싶은 事項이니 忌憚없는 意見を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基春** 實績問題에 있어서는 實務에 從事하신분께서는 詳細히 알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側面에서 생각나는대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事業이 미미했다고 밖에 볼수 없지요. 그것은 여러가지 理由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우선 여건만 좋은 것만을 골라서 事業을 해왔기 때문에 時間이 갈수록 점점 微弱했다고 理解는 합니다. 그다음 財政의 뒷받침이 微弱해서 事業自體도 그렇게 된것이 아니냐고 보지만 앞으로는 역시 豫算의 뒷받침이 果敢히 이루어져야 겠고 地區가 與件이 좋다고 보는 것은 여러 角度에서 볼수 있습니다만 山間地나 平野部고 간에 農民은 다 같은 農土에서 惠擇을 받아야할 農民임에는 틀림없습니다. 小地區라해도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山間地이나 平野部間에 果敢히 計劃을 樹立해서 實施하여야 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하였다고 볼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農土 自體의 整理는 이루어졌다고 치드래도 그 農土의 整理가 그 區域內에서 滿足하게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國道라든가 一般道路하고 連結이 大端히 不安全한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는 더 計劃的이고 緻密한 設計가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金哲基** 計劃上으로는 1981年末에 588천헥타가完了 되어야 하는데 31萬헥타 정도 밖에 안되니까 要求하고 싶은 것은 農水產部에서 積極的인 事業 推進이 要望된다고 보여집니다.



適合하다고 理論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단변을 30m로 보면 장변은 150m~180m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現實과 理論을 절충 補充하여 現在 실지로는 40m, 100m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防劑作業면에서 볼때는 단변과 장변은 어떻게 決定하느냐 하면 어떤 機械를 어디서 作業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농도에서 防劑作業을 하느냐 논 한가운데 들어가서 作業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現在까지 나와있는 防劑機械의 약제가 도달하는 거리를 보아서 가장 強力한 동력 살분기가 75m가 갑니다. 그러면 75m로 분다면 장변의 길이가 농도에서 뿌린다면 75m가 한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양쪽에서 뿌린다고 생각할때 150m가 可能하겠고요. 또 논두렁에 들어가서 뿌린다고 할때 논두렁에서 뿌린 機械가 도달 거리는 30m 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볼때 양쪽에서 뿌리면 20m도달한다면 40m可能하고 30m로 뿌릴수 있다면 60m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機械의 作業면에서 볼때 그렇지만 그밖에 다른 條件들이 關係되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決定할 수 있는 條件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택하고 있는 것은 아주 正確한 데이터가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여러가지 면을 이것 저것 참작하다보니 절충안으로서 나온 것입니다. 앞으로는 農業機械가 가장 큰 가변수가 될것입니다. 機械가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變動이 올 것이므로 그것 역시 機械作業을 전제로 할때 機械出現 機種에 따라서 그 現象도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機械가 나올때 마다 現象을 變更할 수는 없습니다만 外國에서 나와 있는 最新機械 라든가 이런 정도라도 參酌하여서 거기에 맞추어서 區劃現象을 決定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金哲基 층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附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灌溉排水의 效果와 農業機械의 效果 두가지를 다 滿足시키는 意味에서 區劃을 決定함이 原則입니다. 다만 技術의인 문제인데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地域條件 機械化條件에 따라 많이 달라지겠지만 우선 區劃에서 농구와 담구 또는 배미구 이렇게 區分이 되는데 우선이 담구라고 한다면 不變 施設입니다. 그러니 담구의 크기를 잘 測定해야겠습니다. 왜 不

變施設이나 하면 담구의 크기는 用排水 效果에 重點을 두고 計劃을 하기 때문에 用排水 문제만은 2~3십년이 지나도 그렇게 變化하는 要素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런점에서 담구의 크기는 하나의 不變要素입니다. 그러면 배미구는 가변요소입니다.

배미구의 크기를 보통 100m×30m가 됩니다만 배미구의 장변이 바로 담구의 단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機械化 條件을 制限하는 요소입니다. 말하자면 排水條件에 따라서 機械條件이 決定됩니다. 排水가 나빠지면 결국 機械化가 되지 못하니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土性에 따라서 100m, 150m라고 합니다만 앞으로 더 研究가 된다고 하면 혹시 담구가 不變 施設이라고 했는데 排水改善 方法이 특이한 方法이 나온다고 하면 담구 自體도 앞으로 가변 요소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現在까지 研究 條件으로 보아서 排水條件 이라는 것이 큰 制限을 받기 때문에 담구만은 不變要素이고 다음에 배미구가 가변 요소로 作用하는 것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땅 고르기 問題와 같은 것을 지금의 100m×30m 짜리를 그대로 고르기 보다는 가급적 地形이 허락하는 한 넓은 方向으로 計劃이 必要하지 않겠나 생각되며 배미구는 機械化 條件에 따라 앞으로 變化可能性이 많은 것입니다  
咸俊鎬 耕地整理는 區域 크기나 경사를 가지고 무엇인가 決定을 하여야 했는데 現在 事業을 하자면 일정한 基準이 있어 가지고 施行하여야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크게 나누어서 3가지 가변성이 있는 問題라고 보겠습니다. 用排水 條件이라든지 機械條件 또는 時代的인 發展에 의한 가변성 세가지를 어떻게 정하느냐 가장 合理的인 것을 지금부터 決定해서 耕地整理 事業을 하여야 했는데 이 問題도 어디에다 目標을 두고 몇년도에 附合되는것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問題는 耕地整理 事業을 計劃 세울때 어느 年代 發展性을 기준으로 삼아야 가장 合理的인가? 그것을 정하여 이에 알맞는 發展上에 附合이 되도록 區劃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또하나 時代性이 가미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역시 耕地整理 全體區域에 大小 規模가 따라서 발전상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小規模에 附合되는 발전상을 가정해 가지고 그 다음에 무엇을 實現시킬것이나? 用排水 施設에 조금 희생을 시켜 農機械發展에 重要性을 들 것이나?



또는 農機械發展에 조금 희생시켜 用排水에 重點을 둘것이나? 종합적으로 檢討해서 3가지 要素 즉 用排水條件 農機械發展 또하나 時代性등을 가정해서 規模別로 무엇인가 지금부터 해나가야 될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中규모로 40m×200m 이렇게만 단일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는 困難한 問題라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그러한 변수의 3대 要件과 또한 耕地에 附合되는 규정을 만들어서 우선 計劃을 세우고 施行 해나가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문 9>

司 會 아주 좋을 말씀이 계셨습니다. 技術的인 問題에 있어서 우리 農業土木人이 判斷을 하여서 다른 技術 問題와 더불어 基準을 만들어야 된다고 느껴집니다.

다음은 營農과 유지관리의 편이를 도모키 위하여 농도 計劃을 여하히 하여야 할지? 좋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始源 최근 日本에서는 농도 特集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농도의 重要性을 얼마나 깊이 生覺하고 있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농도特集이라는 것을 나는 이렇게 生覺합니다. 농도는 動脈이고 배수로는 靜脈이라고 어디에서 들었습니다. 농도는 農土를 유지관리 하기 위한 심장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도는 營農을 위한 土地의 全地域에 걸친 적정 노선 선정과 아울러서 노폭 선정이 重要한 問題라고 生覺 됩니다. 더우기 冊子를 보면 간선 농도와 지선 농도, 耕作농도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조금전 李基春 博士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그 적정 規模가 어떻게 되며 그 농도가 都市化에 따라 어떤 影響을 가져오는가? 또 어떤 農作物이 어떤 작부체계 밑에서 經營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때 지금 營農目的에 적합한 노선의 선정과 노폭의 선정등이 機械化와 같이 並行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都市化를 감안한 농도 대책이 先行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威俊鎬 耕地整理에 있어서 많은 意見 交換을 통하여 많은 發展이 되어 왔습니다. 現在까지는 幅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機械化가 된다고 할때 이 幅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농도의 質的向上을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시 이것도 大團地 中央道路는 아스팔트로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全

體 농도를 가지고 한꺼번에 아스팔트 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어떤 規模 以上 큰 耕地整理에 있어서는 농도를 어느 規模까지 아스팔트를 해놓게 한후 그 다음에 道路에서는 자갈까지 깔아 주어야만 그래도 農機械가 들어가고 發達되지 않겠는가 勿論 자갈 같은 것은 農民의 經濟力이 나아지면 할수도 있겠지만 아스팔트 만큼은 農民들이 自力으로 하기 어려운 實情이기 때문에 耕地整理 事業을 할때에는 적어도 500정보 이상 1000정보 이상의 耕地整理를 할때 中央道路에는 반드시 아스팔트를 할수 있도록 하고 여유가 있으면 다른 道路에는 자갈을 깔고 그리고 全體 농도에도 자갈을 깔수 있는 質的 問題가 向上되지 않으면 機械化의 뒷받침이 되는 농도計劃이 되지 못할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李基春 威理事에게서 말씀하신대로 間線道路까지는 鋪場이 되어야 겠습니다. 또 幅을 많이 改善하였다고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첨가하고 싶은 것은 幅도 幹線支線으로 定하기는 하였습니다만 역시 機械化로 한다면 지선이건, 간선이건 구별없이 충분히 通過할수 있는 幅이어야만 되겠고 耕作道路 까지도 機械가 들어가야 된다고 生覺이 듭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實施하고 있습니다만 過去는 用排水 兼用이란 것을 많이 해왔는데 이것은 지양이 되어야 겠고 지금보면 농도를 排水路에 붙여 있습니다. 과거는 용수로에 붙여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많이 改善이 되었다고 봅니다만 앞으로는 철저히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生覺이 되고 重複되는 이야기 됩니다만 外部의 一般道路하고도 連結이 重要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울러서 耕地整理 計劃을 세울때 다른 部處와 圓만한 事前 協議를 거쳐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問 10>

司 會 耕地整理 施行에 있어서 첫째 地域選定, 둘째 調查測量, 셋째 工事 施工 그 다음이 事業費 支援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지 처분, 土地登記등 有關機關과의 關係와 協調 業務遂行에 있어 여러 問題點이 있을 것으로 思料됩니다. 그 實例와 打開策에 대하여 좋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鎮鎬 問題點을 말씀드리자면 地區 選定이 되겠고 調查設計, 施工事業費支援, 환지 처분, 土地登記, 關係機關등을 分離해서 생각할수 있습니다

다. 特히 農民이 自己 財産權에 關한 處理問題이기 때문에 그간의 耕地整理 事業을 할때 事實上 問題點이 가장 많이 나온 것은 技術的인 면도 있지만 農民과 關聯된 換地가 특히 많습니다. 換地에 있어서 원지환지와 집단환지가 있는데 여기서 行하여야 한다면 집단환지가 바람직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 理由로서는 집단환지라 하면 먼땅 또는 가까운 땅을 全部 高루 團地別로 합쳐서 營農에 가장 適合한 거리에 換地하는 것이나 農民의 不便 때문에 施行치 못하였습니다. 艱難目에 서 볼때 耕地整理는 집단환지 方向으로 다루지 않는한 큰 效果를 거둘수 없습니다. 이러한 問題點을 갖이고 解放後 30年間을 해왔기 때문에 農民이 耕地整理 事業에 熱意가 不足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면에서 果敢히 打開하는 政策이 必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戒後稿** 지금 座談會에서도 問題點에 對해서 많이 論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地區 選定의 方法에 있어서의 問題點이라든지 또 調查設計의 問題點이라든지 여러가지 問題點 등이 많이 있고 工事期間 問題도 移秧期前까지 끝나야 하므로 施工面에서는 工作物 또는 土工에 있어서 工事期間을 短縮하여 移秧을 할 수 있게 하자니까 工作物 施工이 조잡하므로 引受引繼後 農民에게 怨聲을 듣는 것도 있는데 그러한 것도 期間을 延長하든가 年中 工事を 한다면가 해서 粗雜한 工事が 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고 農民이 負擔이 可能한 地區는 事業效果가 좋다고 했는데 果然 農民負擔을 누가 했느냐? 農民負擔이라고 해서 組合이 負擔하거나 業者가 負擔했습니다. 실지 農民이 負擔한 耕地整理 事業이 드물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表現 方法에서 農民負擔이라고 나왔다 뿐이지 事實은 農民負擔이 없어야만 앞으로 일이 잘되리라 생각합니다. 환지 要領에 있어서도 환지가 끝나서 좋은 땅을 주었다. 나쁜땅을 주었다는 農民들의 불평이 많은데 耕地整理 事業에 있어서도 土質이나 土壤을 調查해서 어느땅이 되든지 환지 그것이 適正의 환지가 될수 있도록 調查設計에서 檢討를 해야할 問題가 있고 또한 耕地整理가 끝난뒤 땅에 대한 還金 措置가 잘되지 않고 있는데 結局 還金精算에 있어서 모자라는 사람은 돈을 주고 땅이 남으면 擔保로써 還金이 안될때는 法的 措置를 취할 수 있는 措置도 講究되어야 겠습니다.

<問 11>

**司 會** 오늘날 까지 耕地整理 事業을 施行한후 選地 業務 施行에 있어 大團位 地區는 4-5년이 걸린 예도 있고 그 외 많은 問題點이 惹起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改善點과 打開策이 있어야 된다고 切感하는바 입니다. 이 問題에 대해서 특히 實務를 擔當하고 계시는 盧泰來理事와 鄭鎮鎔理事께서 實感하시고 敍설것으로 보는데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盧泰來** 選地 問題는 사실 個人的 財産權을 變更하는 것이기 때문에 問題가 따르기 마련 입니다.

土地의 지목, 토성, 수리 및 경사 등등이 區域內的 農民代議員들이 參加해서 한다 하더라도 역시 영세 農民들의 불평과 利解 不足으로서 발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러한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면 저희 생각 같아서는 最小限度 日本같은 경우는 前年度에는 選地 計劃에 있어서 사전 계몽을 하는 예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事業 施行 前年度에 農民에게 환지에 대한 사전 弘報活動으로 理解가 되도록 하여야겠고 지금 우리는 選地에 있어서 集團化를 目標로 하고 있는데 과거 風潮에 의해서 祖上에게 물려받은 農土들이 이동이 되니까 상당히 不安感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원지환지와 集團選地의 方法을 併行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유관기관과의 協調 關係인데 특히 환지에서 발생이 나고 있는 것이 國有地의 소관 관청이나 하천 문제를 가지고 타협이 되지 않아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協議를 거쳐서 業務 推進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 하나는 공고 대장의 整理問題인데 市郡에 가보면 公告 대장에 대해서 대장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한필지나 두필지가 있을 境遇에도 分離되어 整理를 하지 않고 있는 實情이고 명의에도 상속 또는 賣買된 農地가 전자의 명의로 그대로 있는 예가 많아 業務 추진에 많은 支障을 주고있고 또 하나는 未登記, 移轉登記 관계인데 사전에 賣買關係가 이루어졌다면 좋을텐데 그렇지 못하여 사후 처리로 인하여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며 業務지연의 原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확정측량 착오문제인데 지적공사에서 境界를 測量할 때 根本이 틀릴때가 있습니다.

地籍 設定業務라 할지라도 이러한 것을 檢討해 보면 착오분에 있어서 返戻하고 또 다시 해온다

는 복잡한 일이 大團地 地區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있어서 測量을 맡고 있는 측에서 誠意를 다하여 적기에 하였으면 選地가 조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登記關係인데 選地등기 처리 업무에 대해서도 相當한 問題점이 있습니다. 登記소에는 정식 직원이 몇 명이 되지 않아 登記業務에 있어서 한군에 集中되다보니 수만필지가 됩니다. 직원 몇 사람이 우리 農地事業의 耕地整理事業만 해줄 것이냐 이것은 어려운 問題입니다. 그리고 한필지 한필지에 대해서 기재사항이 틀려서는 될수 없는 사항이므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러한 것을 改善할 수 없느냐? 거기에 對해서는 國家에서 實施하고 있는 試驗에 合格한 換地土로 하여금 환지등기 촉탁제도를 設置하여 우선 모든 기재사항을 환지사가 하고 나중에 登記交付時는 登記公務員이 確認하는 節次를 取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지금 大法院 登記課와 制度改善研究會에서 論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地方에서 간혹 있는 일인데 환지 청산금 처리 문제에 있어서 法的으로 보던 選地認可後 90日 以內에 환지 정산토록 되어 있는데 事實은 認可가 12월달에 나면 명년 3월이 90일인데 90일 이내에 清算을 하여야 되니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보통 그해 가을에 農事를 짓고 청산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시끄러운 境遇도 있습니다. 농근법 施行令을 改正해서 일시 이용지 지정과 同時에 對象者에게 청산금을 70-80%를 주어가지고 일단 마무리 해놓고 나머지 額數에 있어서 얼마되지 않으니가 본환지 認可후에 支拂하던 좋은 方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鄭鎮鎭** 그간 農業振興公社에서 70년부터 9年間 大單位 事業에서 여러가지 耕地整理事業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부수되는 換地業務에 대해서 오늘 이 時點에서 한 말씀 첨가하고 싶은 것은 換地業務가 于先 공사구역은 가환지로 하고 다음에 本選地의 過程이 있습니다. 가환지고 본환지고 이 自體는 農民들 중에서 代議員을 選出하여 이분들이 모두 結定하도록 法이 制度化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분들 책임하에 施行하는 법 테두리내에서 하는 業務가 잘 되어야 하겠으나 現在로서는 직접 農民이 參與되어 施行되는 關係로 利解關係上的 문제점이 야기되는데 代議員들이 새마을 精神에 立脚해서 全體를 考慮한 土地等級을 定했다라면 오늘의 換地業務에 야기되는 問題점이 많이 減少

가 되지 않았겠으나 생각됩니다. 盧泰來理事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等級에 따라 金額이 왔다 갔다 하는것이 바로 환지 정산금입니다. 한가지 더 添加하고 싶은것은 等級決定에 있어서 代議員 되는분은 새마을 精神에 立脚해서 淸心한 자세로 全體 農地를 勘案하여 다루어져야만이 選地業務에 대한 問題점이 根本的으로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始源** 산업기지 추진법도 있고 農村近代化 促進法도 있는데 換地 業務推進에 있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農業振興公社에서 耕地整理事業을 擔當한다고 할 적에 지적공사에서 인정한 지적측량사 자격증을 所持한 職員이 있다면 그 사람이 測量을 하면 換地가 수행될 수 있도록 농촌근대화 추진법을 改正하여 換地業務가 바로 農水產部長官 管轄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方向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부서간 협조가 문제되기 때문에 業務가 遲延되는 例가 있을것이므로 이러한 것은 특별법에 넣어서 業務가 遲延되지 않도록 어떤 法的 制度的인 改善이 있어야겠습니다.

#### <문 12>

**司會** 이 換地 問題가 지적 測量問題와 結付되어 있지만 어떻게 耕地整理 최종 마무리단계의 重要한 問題임으로 보다 신속하고 더 效果있게 推進할 수 있도록 必要하다면 法的 問題 또는 事務的 節次 問題도 改善 推進해야 되겠다는 여러모로 좋은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座談會의 최종적인 問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推進하자면 금후 어떠한 대책이 必要한지 改善할점(技術的 政策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耕地整理 事業의 총 마무리가 되도록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鎮鎭** 于先 決論的으로 말씀 드리면 이 事業을 積極推進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時代性을 고려한 技術的인 研究結果에 따른 效果的인 事業遂行 및 事業費의 지속적인 支援이 없어서는 안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事業의 成果를 기할수 있습니다 本 事業을 적극 推進하는데 있어서 技術的 側面에서 말씀드리면 農村近代化 및 農村環境 構造 改善을 전제로한 土地基盤 造成事業으로 發展시켜야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선 耕地整理事業으로서 지급히 解決해야 할 것은 農村人口의 減小로 因한 努力의 節約을 위해 機械營農을 어떻게 끌고 나갈것이나? 그러기 위해서는 機械化 規模에 맞는 구역과 농도가 나와야 하고 이런 次元에서

조금전 李基春 教授가 말씀하신 2,000年代를 바라볼 수 있는 計劃으로 끝고 나가야 겠습니다. 또 하나 쉽다고 싶은것은 그동안 耕地整理를 約 32萬 頃보를 했읍니다. 돌이켜 본다면 무엇인가 진지하게 다루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土地를 最大한 利用하자면 排水問題가 많이 다루어져야 하는데 排水問題는 實題로 많이 다루지 못했읍니다. 기존施設도 排水를 다시 檢討한다는 위치에서 앞으로 耕地整理를 적극 推進함에 있어서 排水問題를 좀더 다루어야 겠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排水로 깊이 기타 암거배수 이런것을 해야 겠읍니다. 가까운 日本 예를 보더라도 耕地整理 완료면적은 우리와 큰 차이가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耕地整理는 排水로와 농도를 깊이 考慮하지 않아 추후 후세가 다시 해야 하는 問題가 發生하였읍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計劃을 세워 推進하여야 겠읍니다.

**金始源** 結論적으로 말씀드리자면 耕地整理 事業地區가 우리나라 農村近代化를 위하여 또는 土地基盤組成을 위해서 그 計劃 地區가 적정 선정이 되어가지고 성립된 지구에 대해서 적정한 豫算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겠고 또 施行過程에서 우리는 計劃技術이나 設計技術이나 施工技術面에서 現代的인 技術을 통해서 이루어졌을때 급후 이 事業은 要望 되는대로 잘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盧泰來** 農耕地의 改良面에서 큰 신경을 안쓰는 問題로서 표토 處理 土性改良, 또는 畵토問題라든지 排水改善을 감미한 並行事業을 앞으로 했으면 좋겠고 政策面에 있어서는 지금 營農의 成果가 적어 質적으로 저하된 時期인 만큼 問題가 심각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政府에서 좀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事業을 支援해야 되겠다고 生覺이 들고 지금까지 農民의 負擔을 줄이기 위해 國庫를 增額해서라도 50% 以上으로 해주시던 좋겠읍니다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장기채로 하여 장기상환으로써 農民의 負擔을 輕減시켜 나가는 것이 좋을것으로 生覺됩니다.

**李基春** 개괄적으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耕地整理 事業이 종전에 우리가 生覺한 것과 전혀 다른 각도에서 재 인식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農村近代化를 위해서 農村의 構造改善을 위해서 또는 勞働生産性 向上을 위해서 아주 重要한 事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인식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런 重要한 事業이기 때문에 國家에서 과감한 豫算政策을 並行하여 주셨으면 하는것이 요망 사항의 하나입니다. 우리 耕地整理事業에 從事하는 사람은 단지 시공면에 있어서 技術問題뿐만 아니라 耕地整理 全盤에 걸친 學術的인 研究를 상당히 주력하여 이 事業에 活用하는 計劃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되며 農民 계몽이 必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界火島 事業에 있어서도 그런 問題가 많이 나왔읍니다만 耕地整理 事業을 그에 부수되는 수리구조물을 많이 施設하게 되는데 農民들이 인식 부족에서 물이 조금만 늦게 배수가 되어도 그 時期를 인식 못하고 구조물을 파괴하는 예가 있었고 또 뜻하지 못한 水害로 인하여 수로가 파손이 되어도 그러한 것을 불의의 사고라 생각하지 않고 工事가 불실해서 생겼다고 소동이 벌어지는등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技術的인면에서 충실히 해야 하는 同時에 農民들에게 계몽하는 方法을 並行하여 나아가면 有終의 美를 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司會** 耕地整理를 크게 12가지 項目으로 分類하여 진지한 座談을 했읍니다. 돌이켜 보건데 重要한 부분은 전부 우리가 지나간일, 앞으로 하여야 할 일, 發展시킬일 등 여러가지 이야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요약해서 본다면 政府가 政策的으로 할 일, 우리 農工人인 技術的으로 할 일, 결과적으로 農民자체가 農村近代化를 이루는데 어떻게 參與하느냐 하는 3가지 問題로 要約할 수 있는데 그 중 重要한 것으로 이야기 한다면 政府測에서 종전보다 적극적으로 588,000헥타가 目標가 아니고 244萬 헥타를 全體의 目標로 해서 기본조사를 實施하여 全體를 計劃的이고 技術的으로 分類해서 적극 推進해야 된다고 生覺됩니다. 豫算도 강력한 政策下에 支援하고 또 農民의 負擔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보조율도 높여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問題가 政府가 해야 할 重要한 事項이고 技術者들이 技術問題는 改善할 것은 改善하고 發展시킬 것은 發展시켜야 하겠다는 것을 오늘 이 座談會를 통해서 깨달았읍니다. 오늘의 座談會가 아주 뜻 있고 보람있는 우리 學會員 1,700名과 더 나아가서 現業에 從事하는 農工人 3,000여명의 좋은 良識이 되고 좋은 情報가 되어 큰 성과 있을 것을 확신하면서 이 座談會를 끝내고저 합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오셔서 주셔서 장시간 동안 感謝합니다.